21세기는 왕도의 일중ㆍ미중 제휴 시대로 (8)

◎ 일중 관계에서는 한국이 접착제가 되고, 미중 관계에서는 일본이 접착제

언젠가 한국의 친구가 와서 기무라 씨의 말에서 일중이 축이 되어 나간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이 사람은 한국의 높은 사람으로 아베 신타로가 외무대신일 때 아베 대신의 소개를 받아 한국에서 중국 문제의 강연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일중 관계는 군사력이 아니라 덕의 왕도로 가므로 한국은 염려 안해도 된다고 대답하였는데도 납득하지 않고, 한국에는 적극적인 역할이 없느냐는 것이었다.

한국은 일중이 축이 되어 아시아를 움직일 경우에도 다리 역할이라기보다는 접착제가 되어 주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일본과 중국이 대립할 경우는 앞으로 얼마든지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에도 절대로 쌍방의 마음이 통하는 접착제가 되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잘 되어 한국의 이런 역할이 몸에 배면, 다음 단계에서 일중이 협력하여 중국과 미국과의 평화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요는 이번에 일본이 미중의 접착제 역할을 해주면 이로서 세계 평화의 기초가 된다. 그러한 역사적인 임무를 일본과 중국ㆍ한국이 짊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하여도 중국 자신이 왕도를 가게 하는 데 일본은 군사적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어리석은 짓을 절대로 피하고 철저하게 협력하여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열쇠를 당분간은 일본이 쥐고 있다. 그것이 일본 외교

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중국의 중화사상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중화사상은 중국의 한(漢) 민족이 세계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으뜸가는 문화 국가임을 자랑하는 사상으로 지금도 이를 바탕으로 한 중국 사람의 우월감은 대단하다. 이와 같은 중화사상이 공산당의 일당독재와 결합하면 대국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모택동과 주은래도 나에게 중국 사람은 중화사상의 뿌리가 매우 깊어서 곤란하다. 이를 철저히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로부터 사랑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염려 말고 이 점을 계몽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왕도론이 아무리 좋아도 중화사상이 수정되지 않은 왕도론은 글로벌화할 수 없다. 중화사상을 고치려면 어려서부터 교육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그 교육은 대국으로서 전 인류적 사명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 세계를 위하여 책임감을 갖고 작은 국가, 약소 민족에 대하여도 희생을 아끼지 않고 협력하고 원조하는 책임을 인식하면 세계가 중국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일본도 철저하게 중국을 지원하고 기쁘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더욱 일중 쌍방이 서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항간에는 미국의 키신저와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여, 오랫동안 맺혀있던 미중 관계를 풀어 준 기회에 일본이 버스는 늦게 타면 안된다고 하여 재빨리 미국보다도 먼저 중국과의 교류를 시작하였다는 소문이 있어, 이 기회에 사실을 밝히겠다.

우리가 중국 방문 시기를 1971년으로 잡은 것은, 그 전년인 1970년에 UN

총회에서 중국의 UN 가입안을 제출한 알바니아 결의안이 부결된 직후에 우리는 내년에는 중국의 UN 가입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관서(關西) 재계뿐만 아니라 도쿄 재계와도 상의하여,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자 미국보다도 앞서서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사토(佐藤) 내각의 의향도 무시하고 중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수개월 후에 닉슨의 중국 방문이 발표되었다. 즉 우리의 중국 방문은 미국보다도 앞서 추진되고 있었음을 밝힌다.

당시 재계 수뇌의 조정역을 맡고 있던 나는 역사의 증인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공표해 두고 싶다.

일본의 재계가 온 세상에 새 시대를 개척해 나갔다는 긍지를 잊지 않고 여러분의 더 큰 활약을 기원한다. ♣